

역사문화제와 역사축제의 통합 및 발전 방안

손정관¹, 안태기^{2*}

¹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수료, ²광주대학교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history festival history.

Son, jeong-gwan¹, An, Tai-Gi^{2*}

¹Master of Hotel Tourism Management at Gwangju University

²Professor of Hotel Tourism Management at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 지역의 고대 마한역사문화제에 대한 축제를 독자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을 통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또한 마한의 역사, 문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통해 집중적인 마한문화를 알리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열리고 있는 문화제 및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될 수 있는 총합적 방향성과 향후 발전 방안이 도움이 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발전 제시와 심층 분석을 통해 미래적인 고대 역사문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마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실증분석을 통해 차후 통합된 마한문화를 관광지를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구를 통해 현황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마한축제, 마한문화제, 고대역사, 공감대, 가치, 역사, 통합, 관광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integrated development plan that independently holds festivals for ancient Mahan historical and cultural festivals in our region. It is also aimed at promoting the intensive Mahan culture through attracting and promoting tourists through Mahan's history and culture. To this end, we intend to explore future ancient historical culture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evelopment that can help with future development plans and build mutual consens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examine the value of Mahan culture, develop integrated Mahan culture in the future through empirical analysis by local residents and experts, and present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through research to attract tourists.

Key Words : Mahan Festival, Mahan Cultural Festival, Ancient History, Empathy, Values, History, Integration, Tourist Attractions

1. 서론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관광 매력성을 부각시켜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만족도 형성 후, 그 축제를 통하여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간직함으로써 재방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1]. 특히 정형화와 획일화가 된 현재의 축제에 지역의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 및 문화자원에 현대적 면모를 더하여 독창적이고 참신한 축제를 개발 및 재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2].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전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따라 여가 시간이 대폭 증대되었다[3].

*본 논문은 광주대학교 2022년도 대학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An, Tai-Gi(maxpower1675@hanmail.net)

Received April 25,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3, 2022

Published May 28, 2022

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 된 지역 기반 개최 행사로 개최 지역을 전략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 대안이자 사회·문화 및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되는 관광지원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4, 5].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역사문화축제 나주 마한문화제와 영암 문화축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으면 두 곳 모두 마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한문화는 훌륭한 문화적·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두 곳에서 따로 개최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방안 등이 요구 되고 있다[6]. 축제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의 전통성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관광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여 그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창출한다[7]. 또한 축제는 지역의 관광 매력성을 부각해 고유한 문화체험을 통하여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방문, 추천의사 등의 관광자원의 사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8]. 또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과 유산(heritage) 등 전통적 가치에 대한 기대와 진정한 것에 대한 경험의 욕구를 야기하게 됨에 따라 진정성은 더욱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정의

삼국시대 이전부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있던 삼한(三韓) 중 가장 큰 정치집단으로 54개국의 지역적 연합체로 동쪽에는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이 있었으며, 지금의 경기·충청·전라에 해당하며 강원도 서부와 황해도 남부까지 세력을 형성하였다[9]. 삼한은 언제 성립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초기 철기 시대인 기원전 3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삼한 중 마한이 가장 먼저 성립되었고 진한과 변한이 뒤이어 생겨났으며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성장하였지만 마한은 백제에 병합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10]. 역사학계에서는 백제의 마한 병합에 대하여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의 신공왕후 49년 원정 기록을 따르지만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11, 12]. 고대 '마한'에 대한 연구조사 미흡으로 학계에서는 여전히 통설과 이설이 병존하는 실정이므로 행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라고 했으며[13, 14], 따라서 전

라남도도가 주축이 되어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바른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2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및 영암마한축제

나주시와 영암군은 과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마한을 주제로 따로따로 '대한민국마한문화제',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나주시와 영암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으며, 두 축제는 주제와 시기, 장소는 물론 세부프로그램까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개최년도는 2015~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으며, 장소는 국립나주박물관일원에서 개최되고 있고 예산은 약 471백만원으로 나주마한문화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영암마한축제는 2015~현재까지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으며 장소는 마한문화공원과 예산은 150백만원으로 영암마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여러 언론과 정치인들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마한축제 통합에 대한 기사를 노출하였으며, 마한축제의 통합을 요구하는 기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가 다수 구성되어 있어 유사프로그램간의 소모적 경쟁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15]. 나주 대한민국마한문화제 프로그램으로는 마한 금동관 만들기, 마한사냥 체험, 마한 도구 만들기, 마한 투구만들기, 마한 독널 만들기, 마한촌 바비큐 체험, 마한촌 짚풀 놀이터, 마한촌 프린지 버스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암마한축제 주요프로그램은 마한 금동 만들기, 마한활쏘기체험, 마한 유물 만들기, 마한 투구 만들기, 마한 유물 만들기, 마한 장신구 만들기, 마한 바비큐 굽기 체험, 마한 키즈 놀이터, 영암 문화예술프린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마한축제가 열린 나주 반남면 국립나주박물관과 영암 시종면 마한문화공원은 8.3km, 차로 10여분 거리에 불과하며, 예산 관행 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불거지공 있고 마한축제통합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영암 마한축제 동일시기에 축제 개최되고 있어 동일시기 축제개최에 따른 두 지자체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영암 마한축제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어 동일시기 축제가 개최되어 두 축제는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동일시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Table 1. Major Programs

Sortation	Naju Korean Hama Cultural Festival	a glorious festival
Theme events	Mahan 54 th Country Procession	Namhae Shrine Haeshin Festival
	Opening event (sodo system)	Opening event (sodo system)
	Mahan Ritual(Cheonje, Ancient Tombs)	
Performance & Contest	a national dance competition	a national dance competition
	Performance by the Naju City Choir	Mahan Harmony Choir Festival
	Autumn Orchestra Invited Performance	3rd Fleet Gugak Band Performance
	Culture and Arts Invitation Performance	Mahan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Hanmadang
	Mahan Harmony Eoul Madang	Mahan Cheerful Sports Day
	Mahan Painting Contest	Autumn Light Fork Concert
	Mahanchon Fringe Busking	Yeongam Culture and Arts Fringe
	Mahanchon Kids Challenge	Children's occupation experience KidZania
	-	Chinese Folk erformance (Dragon Dance)
	Experience program	Making Mahan Tools
Making Mahan Geumdong Tourism		Making Mahan Geumdong Tourism
Mahan Hunting Experience		Mahan archery experience
Exhibition promotion and sales	Agricultural Varieties Exhibition Hall	a local food store
	Namdo Youth Health Award	Yeongam Youth Pr Market
	Mahan Local Restaurant, Food ruck Zone	a restaurant in Mahan (A tavern)

3. 전라남도 축제통합요구

전라남도도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마한축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두 축제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의 55.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주시와 영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두 축제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두 축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축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한민국 마한축제는 31.0%, 마한축제는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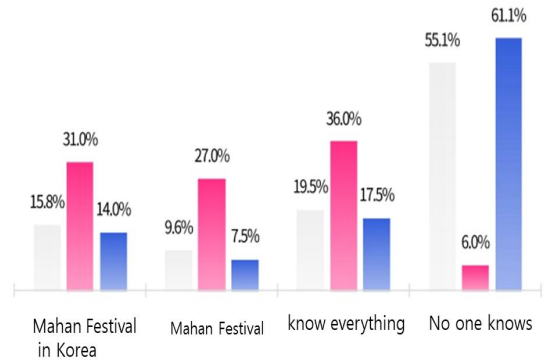


Fig. 1. Festival Perception Analysis (n=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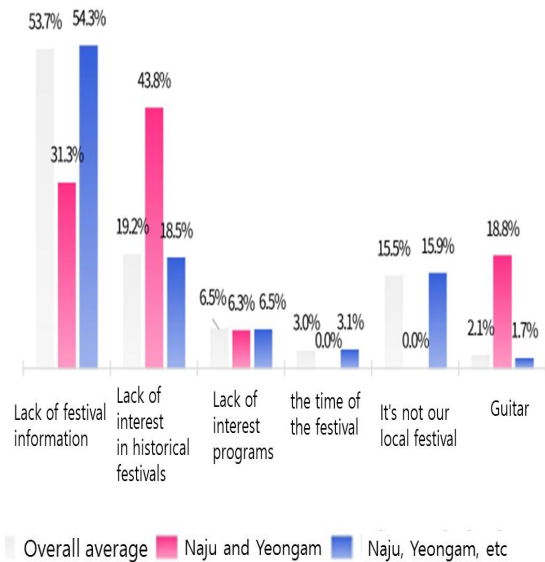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the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Festivals (n=691)

전라남도도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마한축제'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축제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53.7%를 차지하였으며, 나주와 영암지역 전남도민의 경우에는 역사형 축제의 관심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은 축제의 대외적인 경쟁력 부족에 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인 나주와 영암지역에서도 축제정보에 대한 부족과 역사형 축제의 관심이 없어서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난 점은 축제 개선의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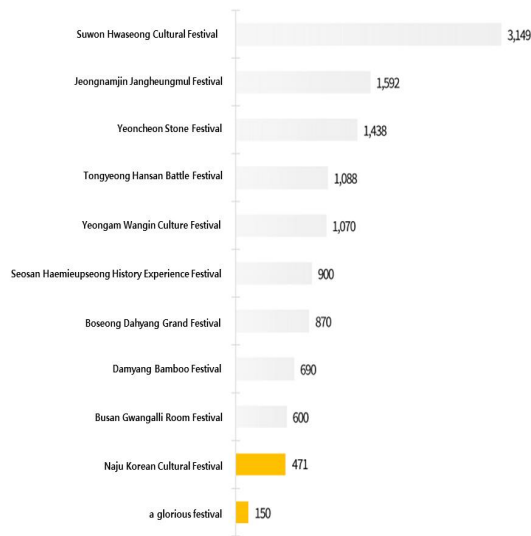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budget for cultural tourism festivals and festivals (Unit: 1 million won) / 2021 festival budget standard

문화관광축제 중 전남남도 축제와 역사형 축제와 나주·영암 마한관련 축제의 예산을 비교한 결과 타 축제 대비 낮은 예산으로 분석됨에 따라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통합 필요성에 대한 전남도민 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4.43으로 긍정적 응답으로 나주시와 영암군의 마한역가문화권 시군 유사축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체평균(6점만점)로 분석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 그렇다. 약간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100점에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적 응답(별로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은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축제사례연구

나주시와 영암군은 과거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마한을 주제로 따로따로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마한문화제'를, 영암군은 '마한축제'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으며, 두 축제는 주제와 시기, 장소는 물론 세부 프로그램까지 유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한 축제가 열린 나주 반남면 국립나주박물관과 영암 시종면 마한 문화공연은 8.3km, 차로 10여분 거리에 불

과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마한축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에서 주최하는 백제문화제와 전라남도·진도군·해남군에서 주최하는 명량대첩축제 사례분석을 통해 나주시의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영암군'마한축제'의 통합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4.1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는 제1회인 1955년부터 제11회인 1965년까지 부여군에서 단독개최, 백제의 충절 인물인 제함과 삼천궁녀위령제(수륙제) 등 제의행사를 중심으로 민속·예술·체육행사가 이루어진 종합문화예술제 성격을 띤 지역 행사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면서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원활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위해 관주도형 행사로 변모하였으며 제11회 행사에서 백제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되었다. 1966년부터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를 참여하면서 부여군과 함께 진행하면서 나주시와 영암군과 같이 1966년부터 1978년까지 백제문화제를 동시 개최되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 동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는 많은 부분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성격을 지니면서 각 지자체가 행사 준비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개최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1979년부터 격년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추진한 백제문화제 격년제 방식은 1979년 제25회 행사는 공주에서 개최하고 이듬해는 부여군에서 개최하는 윤번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홀수 년은 공주시에서 짝수 년은 부여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각 지자체의 백제문화제 추진에 많은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행사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80년대 이후 부여는 40여중, 공주는 70~100여중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정책 미흡으로 정체되었으나,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충청남도 내 서남부권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격년제로 개최한 백제문화제를 2007년부터 통합 개최로 전환하여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한 동시 개최 방식은 두 지역에게 각자 따로 개최하였으나 2007년부터 진행한 통합 개최는 두 지역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동시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었다. 2021년 기준 백제문화제재단과 공주시·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재단은 대표 프로그램 발굴과 학술회의 및 국내·외 교류, 대내·외 홍보, 수익사업 유치 등이며 공주시와 부여군은 전통제례 및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2 명량대첩축제

명량대첩축제는 1997년 해남군에서 주최한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가 시초로 2005년 명량대첩 408주년 기념행사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명량대첩축제를 해남군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였다. 진도군에서 진행한 평화기원제와 해남군의 명량대첩축제를 통합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2005년부터 용역 의뢰 및 민간추진 협의회 설립 등을 진행하여 2007년 10월 전라남도과 진도군·해남군이 통합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해남군 명량대첩축제와 진도군 평화기원제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2007년 12월에 2008명량대첩축제 공동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 16명, 진도군17명, 해남군 13명, 자문단11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명량대첩축제 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재단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그 해 명량대첩축제 통합 개최를 추진하였다. 2008년 통합 개최를 시작한 이후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 시군 축제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함께 전라남도축제추진위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도대표 축제A그룹에서 선정되어 약 2,5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또한 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는 명량대첩축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전라도민의 호국·희생정신 선양, 명량대첩유적지의 보존 및 성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마한역사문화제권 축제 통합

지역주민의견조사

5.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마한축제를 나주시와 영암군의 통합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설문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축제인지도, 방문경험, 축제통합방향성, 참여의향, 기대효과 등 5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자들은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별 지

역민으로 조사되었다. 총 조사대상은 1,100부 중 937부 회수로 85%로 조사 되었다. 먼저 인구통계적 분석으로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50.2%, 여성은 49.8%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높게 응답을 해서 31.4%, 40대가 21.5%, 20대는 20.9%로 70대까지 고른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22개 읍면별로50부씩 배포하였으나 각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직업 또한 공무원34%, 농업/어업/축산업/임업 11.8%, 회사원들은 13.6%로 조사 되었다. 공무원들의 비중이 많은 것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축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참여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한 역사권 축제인지도 분석에서는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별 지역민을 대상으로 마한역사문화권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알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두 곳 모두 모른다' 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55.1%를 차지하였으며, 두 곳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약 19.55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Mahan History Festival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Naju City-South Korean Cultural Festival	148	15.8
Yeongam-gun-Masan Festival	90	9.6
know both places	182	19.5
I don't know either of them	515	55.1

마한역사권 축제 방문경험 항목에서는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별 지역민으로 마한역사문화권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방문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방문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21.7%를 차지하였으며 방문경험이 없는 비율은 약7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erience of visiting Mahan History Festival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I have visited Mahan Culture Festival	199	21.7
I have never visited Mahan Culture Festival	716	78.3

참여한 축제의 전반적 만족도 분석에서는 축제를 방문한 지역민 중 방문한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87.45%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2.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Overall Satisfaction Analysis of Participating Festivals

Sorta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 negative response	very dissatisfied	1	0.5
	Unsatisfactory	3	1.5
a positive response	I'm a bit satisfied	82	39.8
	Satisfaction	61	29.6
	Very satisfied	37	18.0

축제통합의 필요성 분석에서는 [표 5] 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이 78.6%를 차지하였으며, 통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An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Festival Integration

Sorta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a negative response	It's not like that at all.	20	2.2
	I don't think so.	37	4.1
	be nothing of the sort	138	15.1
a positive response	It's kind of like that	232	25.5
	That's right.	305	33.5
	Very much so	179	19.6

축제통합시 효과적인 통합방법으로 [표 6] 에서와 같이 마한역사문화권에서 축제의 통합시 효과적인 통합방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축제 공간 통합'에 대한 의견이 25.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축제개최시기통합'이 23.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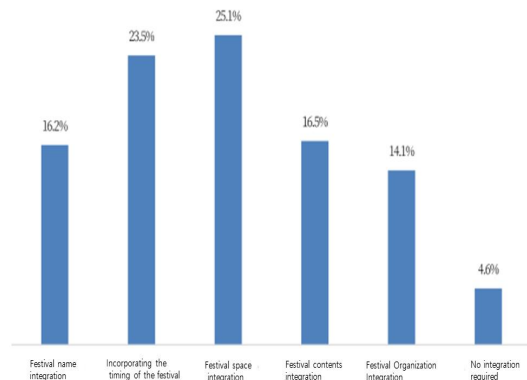


Fig. 4. Effective Integration Method for Festival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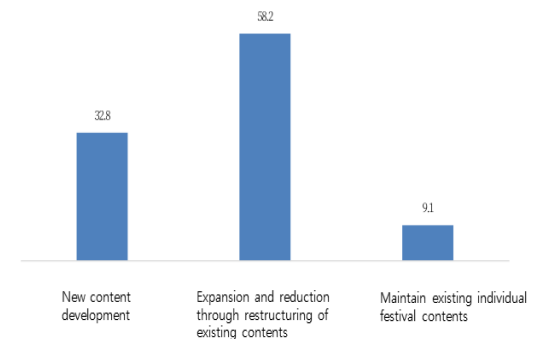
Table 6. Effective integration method during festival integra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Festival name integration	245	16.2
Incorporating the timing of the festival	355	23.5
Festival space integration	380	25.1
Festival contents integration	250	16.5
Festival organization integration	214	14.1
No integration required	69	4.6

전라남도 22개시군별 지역민을 대상으로 마한역사문화권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통합 시 효과적인 통합방식 중 축제 콘텐츠를 선택한 지역민들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기존 콘텐츠 구조 조정을 통한 확대 및 축소'이 전체응답의 58.2%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콘텐츠 개발'방식은 32.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Mahan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Festival 'Festival contents' Integration Effective Measure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New content development	94	32.8
Expansion and reduction through restructuring of existing contents	167	58.2
Maintain existing individual festival contents	26	9.1



6. 마한역사문화권통합을 위한 추진 전략

6.1 축제통합을 위한 5가지의 요소

마한역사문화권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각 시군 축제를 유지하며 단계적 통합이 권장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되었다.

전라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마한역사문화권 통합을 우
히나 추진 전략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
이 도출되었다.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축제인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영암군‘마한축제’는 점진적 통합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는 축제의 명칭으로 기존축제 명칭을 복합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조사가 51.9%이다 보니 나주시 ‘대한민
국 마한문화제’와 영암군‘마한축제’의 통합된 명칭이 논
의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개최시기에 대한 문제와
세 번째로 축제공간, 네 번째는 축제콘텐츠개발로 글로벌
화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축제조
직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분석 되었다.

7. 결론

본 연구는 마한역사문화권 통합을 위한 방향전략으로
나주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영암군‘마한축제’에 대한
통합에 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마한역
사문화권에 관한 통합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
지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연구
가 분석되었다. 마한역사문화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축제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전라남도 주민의
관심 증대로 인해 관광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축제통합시 전라남도가 축제 조직에 참여할 경우
축제 예산의 증가로 인해 축제콘텐츠 강화로 인해 다양
한 볼거리를 창출하여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두 축제가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소모적 경쟁을 통한 예산 낭비 부문을 최소화시
킴으로서 축제의 질적 수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Anheier, H. K. & Kendall, J. (2002).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ary Associ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00(4): 859-903.

[2]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3] Han Sanghyun, (2010)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Beach Facilities and Services on Visiting Demand and Economic Value, *Volume 25*, No. 5, 2010:316.

[4] Martin, Jeffrey A. and Eisenhardt, Kathleen M.(2000), "Dynamic capabilities: what are the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1, pp. 1105-1121.

[5] E.Famous Soo,(1992). A study on the influenc -ing factors of tourism resource conservation value and its estimation model, *Master's thesis at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1992:10

[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olicy Briefing, May 14, 2015.

[7] E. F. Ferrario(1986), Black and White Holiday : The Future of the Local Tourist Industry in South Afric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3. pp 331-348

[8] Gunn, C. A.(1979), *Tourism Planning*, New York : Crane & Russak Co.

[9] Heberlein, Thomas, and J. Stanley Black(1976). Attitude Specific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a Field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 474-479

[10] J. C. Nunnally(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Hill, p 13-14

[11] Mazursky. D. (1989), Past experience and future tourism decis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12] Jegal Taehwan, Lee Seungwoo, Hwang Jiyeon (2020), "In COVID-19,To respond to hygiene and to the quality of service of restaurant customers, One Recognition and Revisit Intent: Scenario-based Case study",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Science*, 49(9), 1036-1043.

[13] Park Hyoyeon, Hwang Seongmin (2020), "Nose using modified IPA"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offline MICE events after B19 - Focusing on quarantine and safety management factors," *Trade Exhibition Research*, 15(5), 83-99.

[14] Pearce E, *Tourism's Human Conflicts: Toward more Psychological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0, 7(1) pp. 122-136.

[15] Gawer, A.(2014), "Bridging differing erspectives on technological platform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Research Policy*, Vol.43, No.7, pp.1239-1249.

손 정 관(jeong-gwan Son)

[정회원]



· 2020년 2월 : 전남대 국제통상학과 졸업
· 2022년 2월 :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수료
· 관심분야 : 호텔, 관광축제
· E-Mail : 97173@naver.com

안 태 기(Tai-Gi An)

[상위권]



- 2005년 2월 :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광고이벤트학과(광고학 석사)
- 2009년 2월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호텔관광경영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축제, 테마파크, 스마트 관

광, 관광축제

· E-Mail : maxpower1675@hanmail.net